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y 2014

cartier.co.kr



The Taste of Spring

2014 Basel World

찬란한 빛의 나라, 모로코 기행

Love&Respect, Gift Book

Cartier

Panthère Ajourée de Cartier watch

김홍석의 관객 모독

김홍석의 작품을 마주하면 수많은 난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과연 미술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진짜이며 허구인지에 대한 혼란까지. 하지만 그 교묘한 속임수가 불러오는 오해와 소통의 과정이야말로 그의 미술이 추구하는 바에 가까울 것이다. 감동 대신, 늘 고약한 방식의 문제 제기를 선택해온 미술가, 김홍석.

김홍석은 여러모로 개념미술의 창시자 마르셀 뒤샹을 떠올리게 한다. 6년 전 그가 벌인 '창녀 찾기(post 1945', 2008)'라는 퍼포먼스를 보자. 그는 '이곳에 창녀가 초대됐다. 창녀를 찾는 이에게 120만원을 주겠다'는 문구를 갤러리 입구에 붙여놓고는, 60만원에 창녀 역으로 섭외한 배우를 관객들 사이에 심어놓았다. 누구인지 두리번거렸을 관객들의 뒤송송한 눈빛, 묘한 공기... 이 얼마나 희극적인 상황인가. 그의 작전(!)대로 관객들은 속아 넘어갔고, 이 퍼포먼스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안티퍼포먼스까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전시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고물 캐비닛 하나가 놓여 있는데, 자동차 도로인 페티를 밟았을 뿐 의미라곤 찾기가 힘들다. 작가의 말처럼 "그저 찌그러진 캐비닛에 노동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일 뿐. 바로 여기서 뒤샹의 '레디메이드' 변기가 오버랩된다. 뒤샹이 변기에 'R. 머트'라는 가짜 사인을 하고 시치미를 뚝 떼면, 그는 '무제'라는 작품명 뒤에 캐비닛에 페티를 바르느라 일용직 노동자가 동원된 시간을 슬쩍 써 넣는다. '112 hours'. 하지만 이것마저도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데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가져온 어법이기도 하다.

전시장에 이 캐비닛보다 더 그럴듯하고 뻔뻔한 버전도 있다. 여피족의 거실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한쪽 벽면엔 여러 추상화 액자가 걸려 있고, 중국의 골동품 시장에서 온 듯한 라운지 চে어(Lounge, Vientiane version, 2013)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액자 몰라주 하기, 동양의 골동품에 탐닉하기, 미술품 좀 컬렉팅하는 서구 상류층의 전형적 수법 아닌가. '김홍석'이라는 작가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 멋져 보이는 추상화는 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볼펜이나 매직펜으로 쓱쓱 그은 의미 없는 그림에 불과하다(물론 그가 진짜로 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김홍석의 작품은 조롱과 문제 제기, 가짜와 진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어엿한 미술품이 되어 갤러리에 걸린다. 100여 년 전 뒤샹이 '변기'를 통해 '미술이 뭐길래'를 물었다면 지금의 그는 좀 더 범위를 좁혀 '미술 생산 과정의 부조리'를 까발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선박을 제조하거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제조업에 의해서였어요. 제조의 근본은 육체노동이죠. 미술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도 지적 행위 이전에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여기 걸린 그림은 제가 고용한 시간제 노동자들에 의해 그려졌지만 그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그 둘 사이의 콘트라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사회 변혁을 꿈꾸거나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는 사실 자체를 미술로 보여줄 뿐이죠." 실소가 나올 만큼 허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너무나 우아하고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걸려 들었을지언정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며 그림을 봐왔는가 하는 물음에 쾌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지금, 개념미술가 중에서도 가장 극단에 가 있는 그의 첫 시작은 아마 1984년 일 것이다. 자기 작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던 미대생이었던 그가 바로 그해 공교롭게도 '플럭서스'의 대표주자인 백남준의 희대의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만났던 것. 조지 오웰이 상상 가능한 미래로 설정한 1984년이 오자마자 자신과 일군의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세계 동시에 워싱 생중계했던,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전위적인 쇼였다. "그 퍼포먼스가 세계적으로 히트해서 백남준 씨가 방한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고 저는 당시 미술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이신 학교 교수님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 이게 좋은 미술인가요?' 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죠. 퍼포먼스, 개념미술, 미디어 아트에 대해 물어도 돌아오는 건 '한국적인 걸 찾아야 돼'라는 답변이었어요. 어린 학생이었으니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그걸 알고 싶어 유학을 갔죠." 그렇게 미술 선진국인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 입학했지만, 놀랍게도 그 나라 교수들의 답도 같았다. '너는 한국에서 왔으니 미국 미술이나 독일 미술 같은 것 말고 한국적인 미술을 해라.' 그림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를 휘감았고 그렇게 근대화 이후 우리에게 조선시대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 전시관, 자신의 작품 'Lounge'(Vientiane version)(2013)에 앉은 김홍석 작가. 그의 개인전 <Blue Hours>는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린다.

- 1 '컬레질-131011', urethane paint on wood, 121x121cm, 2013
 - 2 '컬레질-131208', urethane paint on canvas, 120x120cm, 2013
- 이번 전시 주요 작품 중 하나인 '컬레질' 회화 연작.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정 시간 고온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걸레질을 통해 닦아낸 결과물이다. 컬레질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간 작가의 요청에 의해 컬레질은 멈추게 된다.
- 3 국제갤러리 야외에 설치된 조각 작품. 풍선 15개를 브론즈로 주물을 떠 쌓아 올린 작업으로 가벼운 풍선을 가장 무거운 재료 브론즈로 표현했다는 함의가 있다. '15 breath', bronze, 32x32x285cm, 2013



“좋은 예술은 겉으로는 나쁜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과 인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흘깃 봤을 때는 '나쁜 거야' '추한 거야'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결국에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미술 말이죠.”



사람 건설적 연작 중 'Wings' 앞에 선 김홍석 작가. 스틸이라는 무거운 재료에 광택을 내 'WINGS'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겉보기엔 마치 은박지같이 가벼운 재료가 실은 스틸로 만들어졌다는 재료적 반전, 그에 깃든 노동력 등 다양한 층위가 포함된 작품.



국제갤러리 전시관의 한쪽 벽면. 피그리진 캐비닛에 퍼티를 바른 작품 'Untitled(112 hours)'가 검게 페인트칠을 한 벽면을 배경으로 놓여 있다. 배경이 되는 검은 벽면 역시 노동자로 하여금 페인트를 대충 바르게 한 작업으로, 전시가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Untitled(Big Black Wall)'(2014)

의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우리 것'이 그다지 남아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모델이나 예식장 건축을 보세요. 이것들은 소위 베르사유 궁 같은 유럽의 건축양식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아주 애매모호한 번역이지만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패션이 그렇듯, 한국의 현대미술도 어찌 보면 서양의 현대미술이 번역된 것이죠. 이런 번역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것도 미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차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었어요.' '문화 번역'이라는 그의 중요한 작업 주제는 그렇게 촉발됐고, 그의 작업은 '무국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현대미술의 어법에 충실한 모습을 갖게 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국가를 한국어로 번역해 5명의 한국인에게 부르게 했던 '국가 부르기 작업 G5'(2004)가 그러했고,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한국어로 번역해 광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응변으로 발표하게 한 영상 퍼포먼스 'Ich bin ein Berliner'(2006)가 그러했다. 문화 번역의 우스꽝스러움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작업에 끌어들이는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표면화하며 비슷한 참여적 예술 행위를 에둘러 비판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보면, '시간제 노동자'의 예술 기여 행위로 예술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 (Blue Hours)의 씨앗은 이미 그 속에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그의 작업이 시종일관 이토록 어렵게 이해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리 보면 심오하고, 저리 보면 우스운 게 그의 작업의 못 말리는 매력이며 그에게서 고수(!)의 냄새가 풍기는 이유이니!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 올려(사실은 '레진'이라는 재료로 구현)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와 유사한 조각을 만들거나(기울고 파장된 형태에 대한 연구, 2011), 버려진 콘크리트 덩어리나 깨진 벽돌 따위를 조각하듯 칠하고 마치 우주를 은유하듯 배열하며 심오함에 조소를 던지는 식. 그중 작년 플라토에서 선보였던 '미스터 김'(2012)이란 작품은 차라리 배꼽을 잡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유머를 선사한다. 원래 현대무용가와의 협업이었으나, 전시장에 내내 세워둘 수 없는데 다 그 김 씨가 부끄럼을 많이 타 이불까지 '친절하게' 덮어주었다던 그 작업 말이다. 그러니 이중 삼중의 반전, 뒤통수를 여러 번 맞는 듯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김홍석이라는 작가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저토록 단정하게 정돈된 작가의 외양마저도 철저히 계산된 것

은 아닐까! "제 안에 배드 보이가 있다고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난이 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고도의 장난이 아니라 퍽 피고 있는 걸 탁 치는 정도죠. 세상에 심각한 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장난 거는 사람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면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싫어요. '거참, 긴장되게 만드시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쪽이죠. 한국에서 그런 정도의 어법을 미술에서 안 썼는지 저를 장난꾸러기처럼 보는데 이해는 되지만 내 맘엔 그게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진짜 사람을 쓰긴 어렵고, 탈북자를 만나긴 귀찮고 '아니 한 달 동안' 하는 생각에 그럴 거 없이 '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탈북자인데, 어찌고 저찌고'하며 글로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Bunny's Sofa', 2007)" 시중 거짓말과 속임수, 반전을 이용하는 그지만, 정작 그는 이것이야말로 '솔직한 태도'라 못 박았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역겨운 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구의 시스템만 쪽 빼어서 흉내내는 것"이라 말했었다. 그의 작품 속에 이중 삼중의 레이어가 숨겨져 있고 난해한 텍스트까지 자세히 덧붙여 있는 이유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명확한 비유는 우리가 내내 어렵다고 푸념하는 '개념 미술'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답이기도 할 것이다. 전시 오프닝을 위해 자리를 떠나 하는 그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하는 '좋은 예술'에 관해 물었다. 스스로 비윤리를 실천하며 때론 위험한 비판에 처하면서까지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어렵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계속 더 어려운 이야기를 내던지는 이유는? 그의 대답엔 추호의 망설임이 없었다. "좋은 예술은 겉으로는 나쁜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과 인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흘깃 봤을 때는 '나쁜 거야' '추한 거야'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결국에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미술 말이죠." 그 답은 1년 전 플라토에서의 전시 (좋은 노동, 나쁜 예술), 지금의 전시 (Blue Hours)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기도 했다. 그 대답과 동시에 해괴망측하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수많은 예술가의 이름이 떠올랐다. 카프카, 티노 세간, 이상, 달라... 그의 작품 또한 계속해서 더 많은 오해와 소통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서**